

# 목장 나눔지 (10월 15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184장 / 불길 같은 주 성령

**Words 말씀**

본문 열왕기상 18:30-46 / 헛된 신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우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물을 채워 번제물에 붓게 한 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훔아버립니다.

[1]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30-40절).

1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합니까(30-35절)?

2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36, 37절)?

3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자 백성과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39, 40절)?

**<나눔1>** 엘리야는 열두 돌을 취해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2>**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나사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엘리야는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41-46절).

1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41절)?

---

2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를 예고한 후, 어떻게 행동합니까(42-44절)?

---

**<나눔3>** 엘리야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 믿음으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Work & Witness 사역나눔

### 1. 사랑의 바자회(음식)

- 일시: 10/27(금) 오전 11시
- 목장별, 전도회별로 잘 준비해주시고 다 함께 참여하는 풍성한 바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